‘번트 장인’ KIA 김태군 “야구는 팀스포츠니까”

어떤 플레이가 팀에 도움 되는지 생각하고 노력해야
“번트 잘해 야구 오래 할 것”…후배들에 ‘비법’ 전수

“홈런타자만 1군에 있는 게 아니다. 야구는 팀스포츠다.”

KIA 타이거즈 포수 김태군은 ‘팀’을 강조하는 선수다. 그만큼 각자의 자리에 맞는 역할과 활약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김태군의 번트 실력도 이런 생각이 바탕이 돼 만들어졌다.

KIA에서 ‘번트’하면 떠오르는 선수가 김태군이다. 김태군은 작전 상황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번트를 수행하면서 ‘번트 장인’으로 통한다.

김태군은 “모든 선수가 홈런치고, 타점하고, 멀리 치면 좋겠지만 야구라는 스포츠는 팀스포츠다. 어떤 플레이를 해야 팀에 도움이 되는지 생각하고 노력해야 한다. 말로만 도움이 되고 싶다고 할 게 아니라 팀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한다.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번트 상황에서는) 내가 할 일을 하는 것뿐이다. 번트할 때 긴장 많이 한다. 신경 많이 쓰이지만 내가 할 일을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긴장감 속에서도 가장 안정적으로 번트 작전을 수행하고 있지만 김태군에게도 번트가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다.

김태군은 “야구는 기본이 번트다. 나도 학교 다닐 때 번트를 못했는데 훈련을 많이 했다. 고등학교 때 훈련량을 많이 가져갔다. 번트를 잘 대면 야구 1년을 더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야구 오래 하는 게 목표다”고 웃었다.

베테랑 김태군이 부단한 노력으로 번트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지만, 많은 선수가 번트를 어려워한다.

너무 세게 대거나 방향이 잘 못 될 경우 ‘보내기’라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 상대 배터리와의 싸움에서 밀려 자신은 물론 최악의 경우 주자까지 동시에 아웃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내야수 박민은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번트 수비가 어려울 것은 없다. 번트 타구 세기에 따라서 상대가 어떤 플레이를 하느냐에 따라서 앞 주자를 처리하거나, 타자주자를 처리하면 된다”며 “번트 대는 것은 어렵다. (번트 자세로) 나와 있으면 직구 던져주는 것 같고, 방망이를 들고 있으면 변화구도 던지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다.

팀에 맞는, 상황에 맞는 역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통해 번트 실력을 갖춘 김태군은 어려움을 겪는 후배들에게도 비법을 전수해 주고 있다. 박민도 얼마 전 김태군에게 원포인트 레슨을 받았다.

박민은 “자세 때문에 뭐라고 하셨다. 방망이로 존을 커버하고 있어야 하는데 내 몸을 커버하고 있었다. 존에 맞춰 방망이를 대고 있어야 하는데 다리가 뒤로 빠지면서 멀어지니까 그냥 그대로 뒤로 오라고 하셨다. 그렇게 하니까 공이 잘 보였다. 선배님 말씀 듣고 나서 번트 상황에서 역할을 했는데 잘 했다고 칭찬해 주셨다(웃음)”며 “조재영 코치님도 많이 알려주신다. 번트는 실패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KIA는 지난해 시원시원한 타격으로 1위 질주를 했었다.

나성범, 김선빈이 NC와의 퓨처스리그 경기를 통해 실전 테스트를 하는 등 부상 선수들의 복귀가 임박했지만 완벽한 다이너마이트 타선을 재구성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만큼 후반기 선두 싸움을 위해서는 세밀함이 필요하다. 작전 상황에서 세밀한 승부, 김태군이 그 중심에서 역할을 이어갈 전망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팀 스포츠’를 강조하는 KIA 김태군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번트 장인’으로 통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최형우, 그나마 다행이다

햄스트링 부상 심하지 않아 후반기 바로 복귀 가능…‘최고령 미스터 올스타’ 갱신은 불발

지난 8일 한화와의 원정경기 도중 허벅지 통증으로 교체됐던 KIA 최형우가 햄스트링 부종으로 전반기를 마감했다. 〈KIA 타이거즈 제공〉

KIA 타이거즈의 ‘최고참’ 최형우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전반기를 마감했다. 다행히 부상 상태가 심하지 않아 후반기 시작과 함께 전력에 재합류할 예정이다.

KIA는 9일 “최형우가 한마음 정형외과 등 2곳에서 초음파 검진을 실시했으며, 우측 햄스트링 부종 소견을 받았다”며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 치료를 받은 뒤 후반기 복귀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형우는 지난 8일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의 원정 경기 도중 오른쪽 허벅지에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대주자 이창진으로 교체됐었다.

3회초 1사에서 볼넷으로 출루한 최형우는 오선우의 우측 2루타 때 3루로 진루한 뒤 덕아웃으로 물러났다.

경기 후 병원 검진을 받은 최형우는 햄스트링 부종 진단을 받아 전반기 2경기를 남겨두고 전력에서 이탈했다.

최형우는 그라운드 안팎에서 ‘부상병동’ KIA를 지탱한 버팀목이었다.

김선빈, 나성범, 김도영이 빠진 상황에서 최고참으로 물심양면으로 후배들을 이끈 그는 그라운드에서도 나이를 잊은 활약을 이어갔다.

올 시즌 KIA가 치른 86경기 중 83경기에 출전한 최형우는 289타수 95안타, 0.329의 타율을 기록하면서 ‘3할 타자’로 맹위를 떨쳤다.

그는 또 14개의 홈런과 함께 0.347의 득점권 타율을 장식하면서 55타점도 기록했다.

최형우가 부상으로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최고령 미스터 올스타’ 도전이 무산됐다.

최형우는 올스타 베스트12 투표를 통해 나눔 올스타 지명타자로 선정돼 ‘별들의 잔치’를 앞두고 있었다.

팬투표에서 94만 9610표를 얻은 최형우는 선수단 투표에서 166표를 받아 문현빈(팬투표 126만 2466표·선수단 투표 90표)을 총점 0.27 차로 누르고 당당히 베스트12에 선정됐었다.

이와 함께 최형우는 지난해에 이어 ‘최고령 미스터 올스타’ 도전 자격을 얻었다.

최형우는 지난해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펼쳐진 2024 KBO 올스타전에서 솔로홈런 포함 3안타를 터트리면서 40세 6개월 20일에 MVP로 선정됐다.

2011년 이병규(36세 8개월 28일)를 넘은 ‘최고령 미스터 올스타’였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SINCE 1952
광주일보 73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다시 바람 분다…SF 이정후 멀티안타

3경기 연속 안타…팀 4연승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다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이정후는 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5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홈 경기에 7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2안타를 기록했다.

최근 3경기 연속 안타를 생산했고, 지난 3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전에 이어 6일 만에 멀티히트(한 경기 2안타 이상)를 작성했다.

0-0으로 맞선 2회말 1사 1루에서 첫 타석에 들어선 이정후는 필라델피아 우완 선발 타이완 워커를 상대로 우전 안타를 쳤다.

볼카운트 2볼 1스트라이크에서 한 가운데 몰린 시속 149㎞ 직구를 잘 받아쳤다.

샌프란시스코는 후속 타자 도미니크 스미스의 좌전 적시타로 선취점을 뽑았다.

이정후는 1-0으로 앞선 5회말 두 번째 타석에서도 안타를 때렸다.

선두 타자로 나선 이정후는 좌완 불펜 태너 뱅크스의 초구 몸쪽 슬라이더를 공략해 좌전 안타를 치고 출루했다.

후속 타선의 침묵으로 득점을 기록하진 못했다.

샌프란시스코는 이후 6회 한 점, 7회 두 점을 내줘 1-3으로 역전을 허용했다.

이정후는 나머지 타석에서 침묵했다.

7회말 선두 타자로 나와 2루 땅볼을 쳤고, 9회말 무사 2루 기회에선 3루 뜬 공으로 물러났다.

샌프란시스코는 이후 윌머 플로레스의 중전 안타로 만든 1사 1·3루 기회에서 패트릭 베일리의 끝내기 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으로 4-3 승리를 거두고 4연승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IBK기업은행-GS칼텍스 ‘우승 다툼’

‘한국실업배구연맹 & 프로배구 퓨처스 챔프전’ 격돌

여자 프로배구 IBK기업은행과 GS칼텍스가 ‘2025 한국실업배구연맹 & 프로배구 퓨처스 챔프전’ 우승을 다툰다.

IBK기업은행은 9일 충북 단양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대회 여자부 준결승에서 현대건설에 두 세트를 내주고도 극적인 3-2(15-25 16-25 25-16 25-23 15-12) 역전승을 거두고 결승에 올랐다.

이어 열린 준결승에선 GS칼텍스가 한국도로공사를 제물 삼아 결승행 티켓을 얻었다.

A조 조별리그에서 조 1위(4승)로 준결승에 오른 기업은행은 B조 2위(3승 2패) 현대건설과 맞붙었다.

첫 세트를 15-25로 크게 진 기업은행은 2세트도 넘겨줘 세트 스코어 0-2로 몰렸다.

하지만 기업은행이 3세트 초반부터 강한 공세로 반전 드라마를 썼다.

기업은행은 승부처였던 3세트를 25-16으로 따낸 뒤 접전을 펼친 4세트도 25-23으로 이겨 승부를 최종 5세트로 몰고 갔다.

기세가 오른 기업은행은 미들 블로커 김채연(21점)과 아웃사이드 히터 고의정(20점), 전수민(14점)의 활약으로 5세트를 15-12로 가져오며 역전 드라마를 완성했다.

현대건설은 서지혜가 양 팀 최다인 28점을 뽑고, ‘이적생 듀오’ 김희진(11점)과 이예림(14점)은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으나 팀 패배로 빛이 바랬다.

B조 1위(5승)로 준결승에 오른 GS칼텍스도 A조 2위(2승 2패) 한국도로공사에 3-1(23-25 25-21 30-28 31-29) 역전승을 거두고 결승 진출 티켓을 잡았다.

GS칼텍스는 세트 스코어 1-1로 맞선 채 맞은 3세트에 듀스 랠리가 이어지던 28-28에서 김미연이 강타로 연속 득점하며 세트 스코어 2-1로 역전했다.

상승세를 탄 GS칼텍스는 4세트 듀스 대결도 31-29로 승리하며 결승 진출을 확정했다.

한편 남자부는 현대캐피탈-OK저축은행, 국군체육부대-화성특례시청이 각각 4강 대결을 벌인다.

/연합뉴스